순천만국가정원 홍학 가족의 망중한 순천만국가정원 물새놀이터에서 노닐고 있는 홍학 무리가 정원 내 꽃들 만큼이나 화려한 색감을 과시하며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순천시 제공〉

대영약품, 순천시에 파스 32박스 기부

복지시설·취약계층에 전달

대영약품이 지난달 29일 순천시에 슈퍼쿨파스 2560개(32박스·62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사진〉

이날 기부된 슈퍼쿨파스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파스를 후원한 대영약품 박종선 대표이사는 "지역사회를 통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부에 감사드리며 관절통 등으로 고생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잘 배부하여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4년에 전남 나주시에 설립된 ㈜대영약품은 전국 8000여 한방병의원 등에 의약품 및 의료용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전남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분들에게 파스 등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농장주 15명 대상 치유농업 강화 교육

곡성군이 지난 29일 곡성군치유농업협의회와 치유농업에 관심이 있는 농장주 15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치유농업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했다.〈사진〉

이번 교육은 전남도립대학교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호남대 지성한 교수를 초빙해 '치유농업의 이해와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법'을 주제로 자연과 주의력 회복, 흙의 치유효과와 활용방법 등을 강의하고 실습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사람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이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곡성군에서도 지난 2024년 관내 치유 농업사와 치유 농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주축이 돼 '곡성군치유농업협의를 구성했다.

현재 2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분기별로 회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곡성군농업기술센터는 치유농업협의회 회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장 발굴을 위해 앞으로 총 9회에 걸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치유농업이 전문화되어 지역에 맞는 치유 자원을 발굴하고,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 모델을 육성하도록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

구례군, 경기도 하남서 구례오이 홍보행사

구례군이 지난달 29일 오이데이를 기념하여 경기도 하남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도농상생 구례오이 산지 직송 홍보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구례 취청오이를 수도권 시민들에게 알리고, 오이 소비를 촉진하며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구례군 시설원예 연합회, 구례농협, 하남농협이 공동 주최했으며, 관련 기관과 단체, 오이 농가, (사)오이생산자협의회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행사 참여자들은 4000개의 오이를 무료로 나누며 구례 오이의 우수성을 직접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례 오이는 지리산의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나며, 비타민 C, 미네랄, 칼륨 등 영양이 풍부해 체내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김순호 구례군수는"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건강한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며, "구례 오이 농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고, 이번 행사가 도시와 농촌이 지속 가능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오이 모종 및 볏짚 지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고품질 오이 생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시 실무직 중심 정책디자인단 운영

7급 이하 21명 직원 5개팀 구성
관광·일자리 등 신규시책 발굴

'2025년 광양시 정책디자인단'이 지난달 28일 광양수산물유통센터에서 정책개발 교육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광양시가 지난달 28일 광양수산물유통센터에서 개최한 정책개발 교육을 계기로, '2025년 광양시 정책디자인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광양시 정책디자인단'은 시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정책개발 모임으로, 올해는 21명의 직원이 5개 팀을 구성해 관광, 문화, 일자리, 지역경제, 주민복지,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정책 발굴에 나선다.

특히 올해 정책디자인단은 7급 이하 저연차, 다양한 직렬의 직원이 주축을 이뤄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대된다.

시는 실질적인 정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첫 교육에서는 사회환경 변화와 중앙부처 정책 동향, 광양시 정책목표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인공지능(AI) 활용 실습과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정책기획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

앞으로는 연구활동 계획서 첨삭, 전문가 코칭, 선진지 벤치마킹, 중간 점검 등을 거쳐 각 팀의 과제를 구체화하고, 단계별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부서 피드백을 반영해 정책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실행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오는 7~8월 중에는 성과공유회를 열어 팀별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시책은 2026년도 광양시 신규 시책으로 반영·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우수 팀에 포상금과 인사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정책개발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는 전라남도 내 유일하게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도시이지만 지방소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듬어 실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을 만드는 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균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은 "정책기획 역량은 공무원이 꾸준히 키워나가야 할 핵심 자질 중 하나"라며 "이번 정책디자인단 활동이 직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광양시의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시책을 발굴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